

‘전세계 뮤지션 한자리’...글로벌 음악축제 열린다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내달 1-6일 5·18민주광장 일대서
16개국 32개팀 라이브 경연부터
국제 음악산업 컨퍼런스까지 다채



세계 최대 규모의 버스킹 음악 축제가 빛고을에서 펼쳐진다.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진행된다. ‘음악’이라는 큰 그릇 안에 서로 다른 형식의 음악 콘텐츠가 함께하는 ‘셀러브 보울’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주요 콘텐츠로 라이브 경연대회와 초청공연, 국제 음악산업 컨퍼런스 및 아시아 쇼케이스 공연이 준비됐다.

◇실력파 뮤지션 라이브 경연 및 초청공연
열띤 경쟁 속 예선을 거쳐 32강 본선 티켓을 거머쥔 16개국

32개팀(국내 13팀, 해외 19팀)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5·18민주광장 일원 3개 특별무대에서 수준 높은 라이브 경연을 펼친다. 총 상금은 1억원으로 1위인 ‘골든버스킹상’에는 상금 5천만원, 2위 ‘실버버스킹상’ 2천만원, 3위 ‘브론즈버스킹상’ 1천만원, 관객이 참여하는 ‘시민인기상’ 100만원을 수여한다. 초청공연 또한 다채롭다. 전통 바스크 민속음악을 현대적 약기와 결합한 ‘코른치(스페인)’, 나폴리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매력적인 트리오 ‘수오노 다에레(이탈리아)’, 대한민국 전설적인 블루스·록밴드 ‘신촌블루스’가 버스킹 월드컵 무대에 선다. 아울러 결선 축하무대에는 지난해 버스킹 월드컵 총장 버스킹상 수상자인 ‘김순영 재즈텟’과 모던록의 계보를 잇는

‘몽니’가 나서 공연을 펼친다. ◇국제 음악산업 컨퍼런스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제 음악산업 컨퍼런스의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가 전일빌딩245에서 올해 처음 열린다. 아시아 23개국 회원을 둔 뮤직네트아시아, 23개국 뮤직마켓이 가입된 글로넷 등 글로벌 음악산업 연합회와 공동 주관 행사다. 독일 ‘재즈어헤드’, 모로코의 아랍·아프리카 뮤직 엑스포 ‘비자 포 뮤직’, 칠레의 ‘위매드’ 등 아시아·유럽·남미 등 13개국 축제감독·기획자 18명이 참여한다. 10월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일까지 음악산업과 관련한 6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국·일본·태국 16개팀 뮤지션이 참여하는 ‘아시아 쇼케이스’도 마련됐다.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에 참여한 전 세계 음악산업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펼쳐지는 무대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음악작곡가 뮤지션 3팀과 전주세계소리축제 연계 뮤지션 1팀이 참가해 자신들의 음악을 소개한다.

◇청소년 경연대회 ‘틴틴버스킹’, 스트릿 댄스 등 부대행사 ‘다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청소년 경연대회 ‘틴틴버스킹’도 기대를 모은다. 10월6일 ACC 하늘마당 무대에서 전국의 댄스·밴드·보컬 11개팀이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또 버스킹 월드컵 참가 뮤지션들은 축제 하이라이트 기간인 5일과 6일 총장로우체국과 동명동 광주폴리, 금남로 일원에서 프리 버스킹 거리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장로우체국 앞에서는 시민 누구나 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이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광주를 대표하는 스트릿 댄스팀 본선 무대, 폴리마켓, 버스킹 라운지 등이 열릴 예정이다.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 버스킹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육사(月幾亡, 馬匹亡无咎), 구오(有孚攣如), 상구(翰音登于天无咎)”

〈월기망 마필망 무구〉

〈유부연어〉

〈한음등우천 무구〉



〈215〉육십사괘해설 : 61. 풍택중부(風澤中孚) 下

중부괘 육사의 효사는 ‘월기망, 마필망 무구’(月幾望, 馬匹亡无咎)이다. 즉, ‘달은 거의 찼는데 말이 짝을 잃었으나 허물은 없다’는 뜻이다.

사효는 음위에 음효로 위가 바르고 손괘의 주효로서 구오의 인군을 바르게 보필해 나라의 대의(大義)를 바로 세워야 하는 대신이다. 보름달은 인군인 구오를 말하고 기망은 구오에 이르지 못한 육사를 말한다. 마필망에서 짝 필(匹)은 육사와 음양 상응하는 초구를 말한다. 육사는 구오와는 의(義)와 공(公)의 관계이고, 초구와는 정(情)과 사(私)의 관계이다.

중부지이(中孚之履 四動)	중부지이(中孚之履 四動)
풍택중부	천택이

따라서 육사는 사적(私的) 관계인 초구를 버리고 공적(公的)인 대의를 위해 구오와 중부가 돼야 허물이 없다. 이를 상전에서는 ‘말이 짝을 잃은 것은 동류의 관계를 끊고 위로 올라간 것’이라고 해 ‘마필망 절류상야’(馬匹亡 絶類上也)라고 말한다.

이때 결혼은 망설인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인간 관계를 잘 해야 하는 때이다. 사와 정을 버리고 공과 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월기망’(月幾望)이라는 효사는 소축(小畜)의 상구와 귀매(歸妹)의 육오에도 있다. 보름 달(望)에 가까운 것이 소축일 때에는 려흥(麗興), 귀매의 때에는 길(吉)이라고 했지만 중부의 육사에서는 무구(无咎)라 했다. 이는 소축의 상구가 변해 감(坎)의 월(月)로 변했으니 망(望)을 본 것이고, 귀매의 육오는 변해 이월(離日), 감월(坎月)이 동서(東西)에 나란히 있는 상으로부터 취한 것이지만, 중부의 육사는 변해 건(乾)이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소축지수(小畜之需 上動)	귀매지태(歸妹之兌 五動)
풍천소축	수천수 노택귀매 태위택

소축 상구의 흥과 귀매 육오의 길은 모두 위치가 마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중부의 육사가 무구를 얻은 것은 위치가 올바르더라도 굳이 보름달(月望)까지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월기망(月幾望)이고 무구(无咎)인 것이다. 즉, 중부의 육사는 육삼과 같이 중부의 성괘주이고 육삼과는 달리 육사는 위치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믿음(孚)에 감응(感應)해 신망(信望)이 모여질 뿐만 아니라 외괘 손(巽)의 주효로서 손순(巽順)을 잃지 않고 사당(私黨)을 형성하여 정(情)에 끌리지 않으며, 비호(比互)인 구오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무구(无咎)를 얻는다.

‘마필망’(馬匹亡)이란 육사의 짝인 초구를 버리고 구오를 따라 가는 것을 말해 이를 상전에서는 ‘동류를 버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해 ‘절류상야’(絶類上也)라 한 것이다. 이때는 과감하게 결단해 공적(九五)인 이익을 위해 사적(初九)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인간관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결혼은 망설이게 된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사를 얻으면, 사사(私事)로운 소의(小義)를 버리고 공익(公益)의 대의(大義)를 쫓아가야 한다. 손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아 운이 열리고 주위의 좋지 않은 인연들과의 관계를 끊고 공적인 일에 전념하면 후에 행복해진다.

운기, 운세는 공사(公事)에 전념하면 길을 얻고 개인이나 사적(私的)인 일을 계획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험난에 빠진다. 지망 등 바라는 바는 사사로운 감정을 끊고 손위로 부터 신임을 얻어 일을 처리해가면 성취할 수 있다. 사업이나 계획 등도 공적인 목표를 추구해가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을 세운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사정(私情)에 얽매이면 실패하고 관공서의 교섭 등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때, 자신의 야심이나 개인의 감정상의 문제는 청산해야 한다. 지금의 장소가 공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불리하면 이전하는 것이 좋다. 물가는 소폭의 오름세는 있으나 머리가 눌러서 오르는 힘들다. 혼인은 이미 교섭이 있거나 은밀한 연인이 끊어질 때가 되고, 뒷사람이 신뢰하여 소개해준 혼담은 성사되고 길을 얻는다. 임태는 친족의 일로 놀라거나 태어에게 좋지 않은 부부생활로 인해 유산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임월(臨月)이 가까운 시기에 남편의 병독(病毒)으로 인한 감염(感染)을 조심해야 한다(履卦). 병은 위중한 상태에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공적인 사람이 오고 사사(私事)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는다. 분실물은 오래 된 것을 찾지 힘들고 공적인 것은 사적인 일을 포기하면 찾는다. 낱씨는 맑음에서 서서히 흐른다.

중부괘 구오의 효사는 ‘유부연어 무구’(有孚攣如 无咎)이다. 즉, ‘믿음으로 민심을 사로잡으니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중부지손(中孚之損 五動)	중부지손(中孚之損 五動)
풍택중부	산택손

오효는 양위에 양효로 강건중정의 균위의 효로 양실(陽實)한 구이와 믿음으로 서로 손을 잡아(有孚攣如) 하중 민중의 갈망을 지원하니 허물이 없다.

상전에서는 ‘믿음으로 민심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위치가 바르고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해 ‘유부연어 위정당야’(有孚攣如 位正當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이성간 화합이 잘 되고 친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성취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도와주고 협심해주시니 일이 쉽게 이뤄진다.

구오는 중부의 주괘주이고 강중(剛中)이니 부(孚)를 취할 수 있는 상이다. 강중의 부(孚)로써 손을 잡고 서로 당기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맺어지니 무구하다.

구오의 응효의 위치에 있는 구이는 같은 양효이기 때문에 상응(相應)하지 않아 허물이 있어야 하지만, 구이는 명학(鳴鶴)으로 그리워해서 울고 서로 중강(中剛)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대하는 상이니 손은 밧줄로 구오가 호세인 간(艮)의 손(手)으로 밧줄을 가지고 구이를 매어 연결하니 허물을 없게 할 수가 있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구오를 얻으면,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이랫사람(九二)과 상의하면 길을 얻을 수 있는 때이다. 성격은 서로 반발하지만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는 잘 맞아 잘 진행돼 내조자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싫어하지 말고 내조자를 중용(重用)해 써야 한다. 반면에 정사(情事)에 몰두해 분별의 사려함을 잃은 상으

로 음란(淫亂)을 염히 삼가야 한다. 운기, 운세는 신망(信望)을 얻지만 물질적인 소모(消耗)가 있고 이성적인 사랑에 빠져 일을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으니 육사 측근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망 등 바라는 바는 애착으로 인해 지체될 수 있으나 대개 순조롭게 진행된다. 사업이나 계획 등은 약간 지체되나 순행하고 능력있는 인재(六四)를 널리 구해 쓰는 것이 좋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사욕(私慾)이 많고 물질적인 소모가 많으나 진행은 잘 된다. 이젠, 여행, 신축 등은 가능하나 화난(火難)에 의한 재산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 물가는 고가로 오른다. 혼인은 의기투합하여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상이나 삼각관계를 조심해야 한다. 임태는 무사하다. 병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상으로 정기허탈(精氣虛脫)의 기미가 있으니 체력과 기력 보강이 필요하다.

‘운기 운세 여하의 ‘실절에’에서 구오를 얻으면 나에게 성의가 있으면 상대가 따르고 상대에게 성의가 있으면 나도 기쁘기 때문에 서로 믿는다고 해서 중부라 한다. 구오의 때에는 잘 따르는 육사와 구이가 있어 이성운이 좋고, 입과 입술과 같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이 이뤄진다.

‘부동산 매매’에서도 믿을 수 있는 지인(知人)들이 앞장서 매매가 성취된다.

중부괘 상구의 효사는 ‘한음등우천, 정홍(翰音登于天, 貞凶)이다. 즉, ‘닭 우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리지만, 믿음은 부족하니 정도를 지켜 흥함을 방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부지절(中孚之節 上動)	중부지절(中孚之節 上動)
풍택중부	수택절

상효는 음위에 양효로 위가 바르지 않아 부중부정하고 양강하며 괘의 극에 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력을 과신하며 안락만을 추구하여 중부의 믿음을 잃었으니 흥하다. 상전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리지만 믿음은 부족하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해 ‘한음등우천 하가장야’(翰音登于天 何可長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허명(虛名)에 집착하지 말고 실익을 취해야 한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일을 벌이면 반드시 추락의 고배를 마신다. 무리하면 안된다. 상구는 폐가 끝나는 위치이고 부중부정(不中不正)으로 중부(中孚)가 극(極)하는 데에 있어서 믿음을 잃은 곳이다.

‘한음’(翰音)이란 닭이 날개를 푸덕거리리는 외괘 손의 상이다. 닭은 원래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마당에 있는데, 이것이 괘의 상위(上位)에 있고, 괘 그 자체가 대리(大離)로 날아다니는 새의 상이 있어서 닭이 날아가지도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날개를 움직이고 있어, 그 소리만 크게 들리고 몸은 높이 날지 못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중심에 부(孚)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심(內心)이 공허한 것을 부(孚)가 있는 것처럼 치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날지는 못하고 소리만 내고 있어 통하지 못하니 상전에서는 이를 ‘어찌 오래 가겠는가’(不可長也)라 말하고 이를 고집하면 흥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상구를 만나면, 경솔한 행동으로 야망을 이루려 하면 걱정을 불러오고 실패가 계속돼 자포자기하고 만다. 격려하는 목소리만 크고 실제로는 송상하지도 않으며 날 수가 없어서 오직 버둥거리기만 할 뿐이다.

운기, 운세도 좋은 상황이라도 장래의 육심이 화(禍)가

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명성(名聲)은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일시의 공명(空名)으로 안심·고만하면 안된다. 변절(變節)이니 절제를 지켜 무사(無事)를 배려해야 한다. 바라는 바 등은 불기하고 억지로 바라면 화액(禍厄)을 만든다. 사업, 계획은 무너질 상이니 포기 보류해야 한다. 교섭, 담판, 거래 등은 소리 뿐이고 실속이 없어 실패한다. 주소 이전은 결과가 좋지 않다. 물가는 오름세는 말뿐이고 급락한다.

혼인은 겉모양과 중개인을 믿으면 안되는 때로 불의(不義)나 밀통(密通)한 일이 들뜬다. 임태는 소난(小難)이 있고 절제가 중요하다. 병은 절제를 게을리 하여 위험에 빠지고 중병자는 위험하다. 기대는 난망(難望)이고 가솔인은 멀리 떠났어도 가까이 숨어 고만하고 있으며 분실물은 찾지 못한다. 낱씨는 비가 온다.

중부지관(中孚之觀 初凶動)	중부지관(中孚之觀 初凶動)
풍택중부	풍지관

‘도인의 장래 여하’를 문점, 육번서로 입서해 ‘중부지관’(中孚之觀)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본괘 중부는 잠된 성심, 신심(誠心 信心)의 괴로 성실하고 독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지괘 관괘는 고풍관세(古風觀世)의 상으로 언제나 고매한 뜻을 품고 세속을 초탈하여 깊은 심심산골 산중에 들어가 수행하는 도인이나 신선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본괘 중부는 대괘(大卦)로 이화(離火)의 상이 돼 새벽 효(曉), 지괘 관은 불 관(觀)으로 당시 도학계에 이름 있는 효관(曉觀) 선생임을 상과 패명을 추찰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서 효관선생은 ‘도심(道心)은 높지만 물질은 약하다. 중부괘는 중허(中虛)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속빈 강정격이고, 변괘 관은 대간(大艮)의 상으로 큰 명산에 사는 사람으로 본괘 중부에 있었던 두 개의 양이 없어서 재산은 흩어지고 날아가 버려서 재물이 빈약하다’고 말했다. 그러한 즉, ‘계룡산에서 뜻있는 동지들과 농장경영을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고 털어냈다.

이어서 효관선생이 ‘효관선생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입서해 산택손괘 오효가 동(動)한 ‘손지중부’(損之中孚)를 얻었다. 산택손괘의 폐사에 ‘순은 성실함이 있으면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으며 바르게 할 수 있다. 갈 곳이 있으면 이로울 것이다. 어떻게 쓸 것인가. 두 개의 제기(蠱)만 있으면 제향을 올릴 수 있다’고 해 ‘손 유부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양, 감자음 이례가용 향’(損有孚 元吉 无咎 可貞, 利有攸往 蠱之用 二蠱可用 孚)이라고 했다.

손지중부(損之中孚 五動)	손지중부(損之中孚 五動)
산택손	풍택중부

여기에 괘(蠱)자의 상형(象形)이 담뱃갑과 비슷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담배 두 갑을 예물로 사드렸다. 그 결과, 그 날은 상담객들이 많아 재수가 넘쳤다. 손괘 육오의 효사에 ‘육이 이익이 있으면 신령스러운 거북이도 이를 어기지 못하고 크게 길하다고 해 ‘육익지 십봉지구 불귀위 원길’(或益之 十朋之龜 不克違 元吉)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재수가 대길한 날이었다. ‘홍몽선(洪夢鮮) 점에’

〈동인·도시계획학 박사(062-654-4272)〉

